

안문연 신문

창간호 1989. 2. 22

발행처: 안양 문화 운동 연합

주 소: 안양시 안양동 674-9

(☎48-3844)



● 안문연 신문은 ●

올바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지입니다.

창간사

남녘땅 북녘땅 일그러져 민중들의 춤사위로 넘실거릴 그날위해

지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인 무권리, 끝없는 착취와 억압을 강요하는 저들 한줌도 안되는 독점가본가와 노태우 군사정권의 탄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우리 노동자들은 마침내 강철같은 연대투쟁, 승리의 깃발을 내걸고 힘찬 첫걸음을 내 뒀습니다. 저들 미국과 군부독재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작, 우 대립으로 조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영구분단 고착화의 음모를 포장하여 북방정책이라는 호도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광범위한 민중들의 진출은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지역운동의 활성화는 바로 연대투쟁의 힘을 이루는 기초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문화운동연합도 이러한 지역 대중들의 요구들을 받들어 창립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실천활동들 속에서 많은 오류와 실천적 경험들을 보다 성숙된 역량으로 민족, 민중문화의 창달과 보급,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지역은 전 인구의 절반이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도시로서 이러한 지역적 조건속에서 많은 지역운동단체들이 계 연대하여 줄기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들 속에서 문화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되었고, 현재 여러 지역문화단체들이 활발한 문화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실천적 경험을 통

해 쌓은 문화역량을 바탕으로 집중된 힘으로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안문연의 신문은 이러한 실천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감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본 회의 신문은 크게 네가지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문화운동실천활동의 자료로서

첫째, 지역문화운동 실천활동의 자료로서 많은 문화단체들이 각기 지역적 특성과 조건, 장르별, 기능별 문화운동의 경험을 축적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시켜 이것이 문화활동의 실천적 내용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올바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지로서

둘째, 올바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지로서, 지역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내고 올바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들이 대중들의 올바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문화 활동, 문화공간이 적박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정서와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중앙집중적인 미국의 퇴폐문화에 종속된 모방문화가 판을 쳤습니다. 따라서, 지역대중들은 문화적 욕구

를 다른 곳으로 발산시켜야만 했으며 퇴폐적 술집들과 말조차 극적인 스포츠,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교묘히 위장한 미국 영웅주의(적일주의) 람보리의 영화들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안양 지역도 마찬가지로 안양 1번지와 같은 경우는 명동에 못지 않은 휘황찬란한 술집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산도시로서의 지역문화는 사라지고 소비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올바른 지역의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번져 나가고 있으며 본회의 신문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 문예이론의 공유와 논의를 위한 정론지로서

셋째, 문학(문예)이론의 공유와 논의를 위한 정론지로 올바른 지역문화를 형성해 가며 정립된 문학(문예)이론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만들어 작은 의견차이나 역량의 차이를 보다 성숙된 자주적 민족문화, 공동체적 민중문화, 통일문화로 지향할 것입니다.

■ 문화운동의 향방을 모색, 제시하는 신문

네째, 객관적 정세에 입각하여 문화운동의 향방을 모색, 제시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대중적 관점에 서서 변화하는 객관적 정세를 바로 판단하고 문화운동의 실천방도를 찾는 사업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운동단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축으로 쌓은 전문적 역량과 자료의 교류를 통해 민족, 민중문화의 창작과 보급에 있어 서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 발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본 회의 신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과 광주 학살원흉 처단문제, 조국통일 촉진투쟁으로 위기감을 느낀 노태우 정권은 민생치안, 질서유지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공권력 사용을 공공연하게 떠들어 대고 있지만 89년 기사년 새해에도 세계 청년학생축전과 함께 또 다시 조국통일 촉진투쟁의 열기가 한반도 온누리를 들끓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 자주화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은 민중들의 진출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양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낱, 일 개인에 불과한 기업가 정주영의 북한방문은 국가보안법으로 청년, 학생,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는 무참하게 짓밟는 노태우 정권의 본질은 여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참다운 민족, 민중문화가 한반도 온누리에 남녘 북녘땅 일그러져 민중들의 춤사위로 넘실거릴 그 날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의장 엄인희

● 민족민중문화의 대변지로서의 안문연 신문

우선 안양문화운동연합 기관지 안문연 신문 창간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땅에 참다운 민족민중문화건설의 과제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안양지역에서는 안문연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운동의 짧은 경험과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는 안양지역이지만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미약하나마 실천적인 성과가 있었다 (현재의 우리그림, 안양민요연구회, 안양독서회의 활동을 보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운동의 발전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보다 높

은 실천의 질적담보를 위해서 안문연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안문연의 신문은 이러한 과제에 따른 실천의 올바른 방도를 제시하여야 하고 대중의식에 복무하는 안양지역 민족민중문화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안문연이 되길 바라며 신문에 바라는 몇가지 생각을 정리하면, 첫째, 정론지로서 객관적 정세속에서 요구되는 문화운동의 과제와 임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화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안문연 신문은 전문적인 문예이론의 대중적 보급에 힘써야 하는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대중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의 삶과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예활동에 대한 실천적 사례의 보고 연구작업의 성과물을 정리하여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그림편집부

제1회 안양 노래학교

기간: 1989년 3월 9일 - 4월 9일
(매주 월, 목요일)

시간: 오후 7:30 - 9:30

주최: 민족예술연구회 노래단 "세심"

주관: 안양문화운동연합

자격: 노래를 부르고 싶고, 만들고 싶은 사람

접수 및 문의: 48-3844

본회 민족예술연구회 노래단에서는 제1회안양노래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기획

문화운동의 발전과정

4.19이후부터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고양은 문화인들에게 상당한 각성을 하게 한다. 소수 정치권인들이 표방한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외국자본이 밀려 들어오고 함께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문화적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문화인들은 박정권 아래에서 굴욕적인 한일 협정 전제일 본선 광주 성남)철거민 투쟁 유신정권 탄생등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는다 이 변화는 문학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여 조동일씨의 김수영씨의 민요논쟁이 불 붙는다 이 논쟁은 순수, 참여문학의 일대 격전에 서 일방적 승리를 한 참여문학내의 대립이었다 당시 참여문학의 논리적인 근거를 전통(민중)문학에서 찾는 측과 서구, 신흥트류의 실존주의 문학에서 찾는 측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었다

민요(민중문학의 원리와 형식)를 민족문학의 주요한 기초로 보는 견해를 적극 수용한 대학내의 연행자들은 70년대에 탈춤부흥운동을 시작한다. 전통민속문학의 여러 가지 양식중에 탈춤이라는 열려진 구조를 통해 생각을 바꾸어나가는 연행예술운동은 80년대를 거치면서 전체변혁운동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된다 현대에 있어 웅만한 틀거리를 갖춘 문화운동은 예술운동의 각 장르와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언론, 출판운동 그리고 사상투쟁의 본령인 교육, 학술운동의 영역까지도 조직을 갖추어가는 중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제화의 총체이다 문화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한다 물질문화란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이룩한 생산수단과 기타 물질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 정신문화란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교육, 과학, 문학 예술, 도덕 및 기타 정신생활 분야에서의 이룩한 제화를 통틀어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정신문화만 일컫는다

문화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의하여 제약되며 발생, 발전한다 즉 문화는 물질적 부의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하며 그 성격과 내용도 사회경제적 토대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띠며 지배적인 문화는 그 사회를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문화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문화는 철저히 자본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며 자본주의사회현실을 합리화하고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이용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에 반하는 노동대중의 선진적인 문화가 지배문화에 대립하여 출현한다 이 때에 출현한 문화는 노동대중의 선진적인 사회의 도덕 및 미학적 이상을 반영 전망 함으로써 그들을 낡고 부패한 것에 반대하는 투쟁의 대열로 뛰어들게하는 운동에 복무하게 한다

문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문화가 인간의 삶의 총화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화운동이 곧 인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이라는 도식은 위험하다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은 추상적 인간 인간성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계급사회 속에서의 문화운동은 사회적 의식물, 곧 정신문화(사상)를 개조해 나가는 운동이며 이 운동은 특수한 정신활동과 표현언어(예술기능)를 필요로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문화운동을 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풍투박꾸기 운동이라는 실천론에 의해 일을 하고 있다.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퇴폐, 향락적인 문화(물질 풍토를 바꾸기 위해 공동체 놀이 물질)를 보급했다 즉, 문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인 마시고 청바지를 벗어던지는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풍토가 바뀌고 운동이 발전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운동은 개인적인 자주성을 강조하여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대중의 집단적인 자주성 확보라는 진제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 시급한 것은 공동체놀이양식을 다양하게 생산,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문화에 대항하여 선진적인 피지배문화를 출현시키고 보급시키려는 의식화한 대중을 생산하는- 정신을 개조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상부구조에 있어 물질은 곧 의식형태(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조는 예술기능이라는 표현매체를 사용하는 "직능"부운 운동이 된다 문화운동은 여타의 운동(계급부운운동)과 결합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운동이며 이것은 모든 직능부운운동의 본디 성격이다

70, 80년대 문화운동의 발전

1) 탈춤부흥운동

45년 이후 미군정의 무자비한 사상탄압과 50년 전쟁을 치루면서 남쪽의 문예인들에게는 자기보위의 방법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형식이 선택된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예인들은 독재에 대항하는 문화 전통을 탈춤에서부터 찾아내기 시작한다 우선 탈춤원형의 복원과 보급에 힘

을 쓰던 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마당극(창작탈춤)운동으로서 변화한다 예술을 통해 정치적 현실의 질곡을 집단화시키고자 하는 대중들의 노력에 의해 내용으로는 사회현실을 담고형식으로는 마당극이라는 운동을 하게 된다

2) 마당극 운동

단혀진 공간을 사용하는 연극보다는 열려진 공간을 활용하고 운동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마당극은 치열하게 활동을 한다 유신정권 아래에서 재갈물린 언론이나 출판기능의 정체를 극복하고자 마당극은 주로 고랄 폭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담게된다 대중들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하고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했던 마당극은 유신체제라는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꽃핀 예술정신으로 발전해 갔다

3) 현장 문화활동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운동가들은 대중과 결합하지 못한 지식인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기층민중운동 쪽으로 기울어갔다 (전통시대의 민중문화를 오늘날의 민중에 돌려주자 라는 정도의 소박한 생각으로 문화계들은 노동자들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들과의 결합을 통해 촌극 역할박꾸기 놀이, 탈놀이 강습등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낸 문화계들은 공연중심으로 사업하려는 관념을 깨뜨리게 된다

4) 상황을 여는 문화집회

80년 봄에 확보한 공간은 갑자기 주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이 때에 밖의 넓은 공간에서 공연한 마당극과 노래공연 등은 다른 정치집회에서도 정치를 통한 투쟁의지 고양에 기여한다

5) 예술운동 장르의 확산

5.17이후 문화운동 내부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다 문학쪽에서는 시운동이 일어나고 미술 쪽에서는 판화, 공동벽화그리기 등으로 우선 창작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주관주의를 버리고 집단성과 운동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영화쪽에서는 소형영화 집단을 중심으로 자본없는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6) 노래운동의 활성화

대중집회에서 농성장에서 거리투쟁에서 또는 삶에서 새롭게 불려야 할 노래는 그 엄청난 수요에 따라 많은 양의 새노래가 등장한다

7) 부정기 간행물 시대와 출판운동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출판계에는 색다른 출판물이 생긴다 정부의 정기간행물 등록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언론기본

법 제도하에서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의 성격을 고루 갖춘 책들이 출판되었다 언론매체가 전면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사회과학서적의 출판을 기획한 출판사들의 문화운동의 기여도는 상당한 것이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복제, 복사기술의 대중화는 더 이상 권력이 정보교환 기능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요즘 허용하는 복제 출판물의 공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8) 현장문화활동 성과의 활용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현장문화활동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오늘날 민중적 정서가 그들의 생활과 투쟁속에서 어떤 표현전범(전형)을 획득하는지를 검증을 통해 이론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을 실천적 차원에서 검증받을 틀거리가 형성되었고 이는 역량이 집중할 수 있는 조직건설의 당위를 앞당기게 하였다.

9) 대학에서의 대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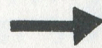
학생일반을 중심대중으로 하는 단위조직이 필요했던 학생운동에서는 대동놀이의 방식을 대학축제에 활용하였다 작은단위로 나뉘어져 참여하도록 짜여진 대동놀이는(국민학교 운동회와 같은) 급속도로 전 대학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전체 대중이 단위별로 잘 조직된 대학에서는 놀이가 투쟁과 함께 결합하여 "대동극"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투쟁의 대중성을 확보한 학생운동은 83년말에 오면 학내에서 경찰을 밀어내고 야 만다

10) 공개문화운동단체의 결성

84년이후 음성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문화운동의 여러 조직들은 공개적인 창립대회를 열고 반합법 활동을 시작한다. 민중문화운동협의회(1987년 민족문학작가회의로 개편) 민주연론운동협의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등이 문화 6단체로 활동한다

11) 장르 소집단 활동의 활성화

문화운동조직들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문화페인자들은 현장문화활동으로 중심역량이 투신하였다 이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량이 필요하였고 공개문화운동 단체들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합법예술활동 공간도 늘어났다. 이러한 양의 확산은 새로운 경향의 연행, 미술, 노래, 춤, 풍물등의 소집단들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각 지역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8 면에 계속

특집

안양문화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순서

글을 시작하며 -

- 1 지역적 상황과 주체역량
 - 2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대중문화조직 건설의 의의)
 - 3 대중문화조직 활동내용 및 평가
 - 1) 대중교육과 선전활동
 - 2) 조직활동
 - 3) 연대, 지원활동
 - 4 안양문화운동연합을 내오면서
 - 1) 연합의 위상과 역할
 - 2) 안문연의 구조 및 사업내용
 - 5 안양지역 문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 글을 마치며 -

글을 시작하며

안양지역의 문화운동이 전개된 시기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87년초 7 맥아를 형성하여 6월 민주화 투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안양 민요연구회(9월 30일) 안양독서회(11월 22일) 우리그림(12월 5일)이 순차적으로 창립하였다. 그리고 일년후 88년 10월 16일 안양문화운동연합이 창립되었다.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 너무도 숨가쁘게 걸어왔다 이제 이 기간을 객관화하여 89년과 90년대를 예시하는 과학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직 걸음마 상태로 실천작업의 성과가 미약한 상태에서 객관화 작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같은 당위성이 강하고 실제의 반영은 미약할 것이다. 또한 집필자의 역량부족으로 객관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 글이 여러동지들의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실천을 통해 보완되고 검증되는 속에서 완성되어지길 바란다.

1. 지역적 상황과 주체역량

86-87년까지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내에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몇개의 소그룹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운동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공개적인 대중실천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대중들은 자기실천의 장을 갖지 못한 채 지배세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아무런 조직적 대응을 강구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속에서 문화운동조직의 태동은 다양한

대중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조직을 건설하여 대중과의 결합력을 높이는 가운데 민족민중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당시 지역의 문화운동 역량은 지역의 4개대학(전대, 신학교)조차 문화패가 결성되어 있지 않았고, 문화운동에 복무 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주로 안양근로자 복지회관과 민중교회에서 노동자 문화강습(미술, 풍물, 기타 등)을 진행하거나 독서모임, 판화모임등을 형성시켜 나갔다. 87년초 이러한 활동가간에 교류가 확대되면서 문화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운동의 일정한 경험과 부족한 이론적 토대 그리고 실천구조 및 실천내용이 다름에서 오는 견해를 극복하면서 지역문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갔다.

2.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8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체 문화운동내에 "과학적 세계관과 노급의 당파성"이 더없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나가는 원칙과 방도에는 80년 전반과 별반 다를게 없이 당위성에 입각한 공허한 이론만 무성했을 뿐 그 실천적 실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문화운동에서의 대중노선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방치되어 있는 광범위한 대중들을 얼마나 많이변혁적 대오에 서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원칙과 방도는 즉, 의식화와 대중화의 방도는 선진적 구호나 논리만으로 혹은 공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중과 결합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활동가와 대중이 직접적으로 만나 대중의 자주성을 발양시켜 내고 일상적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의 투쟁의지를 북돋으며 이를 통한 구체적 분석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이러한 대중노선의 원칙속에서 주변 동료들을 모아 나가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식을 공유하며 대중문화조직의 건설방도를 논의해 나갔다. 대중문화조직(이하 "대중") 건설의 의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첫째는, 퇴폐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의 풍토속에서 문화로부터의 소외를 당해 오던 지역대중이 미약하나마 자신의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 민중이 주인인 문화, 자신의 생활과 결합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문화를 갖게 됨으로 인해 지배층의 문화, 자신과 괴리된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의, 우리의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대중문화공간의창출로 인해 지역운동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 및 여타 운동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3 대중문화조직 활동내용 및 평가

각 대중조직의 일년간의 활동을 내용별로(대중선전 및 교육활동 조직활동 연대활동) 나누어 실천적 모범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1 대중교육과 선전활동

민요연구회의 민요의 날 정기풍물강습, 우리그림의 시민미술전과 시민미술학교, 안양독서회의 독서한마당과 독서강좌 등이 그 대표적인 대중 선전교육활동 등이다

2. 조직활동

이러한 선전교육활동과 결합되어 가입한 회원수는 민요연구회 80명, 우리그림 80명, 독서회 200명이다. 이중에 적극적인 회원수는 민요연구회 우리그림은



이러한 활동은 주로 미조직된 광범위한 시민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항시적으로 대중 스스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려는 창작의지와 일상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투쟁의식을 북돋운다. 또한 문화공간 하나 제대로 갖추어있지 않은 지역적 상황에서 이러한 공간활동은 대중의 정서와 요구의 다양함에 기초하여 대중의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활동이다. 문화운동단체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중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대중성있는 사업작품을 스스로 취득하여 높은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사례로 제5회 민요의 날에 공연된 "시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근로자회관 7월 16일)는 강습을 통해 견인된 교사, 학생, 주부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엄청난 대중동원을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대중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자주적 대중소모임 "어화동동"이 결성되는 성과를 보았고, 대중

30여명, 독서회는 50여명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별, 직업별 소모임이 결성되고 있다. 안양독서회는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여 고교생 소모임, 노동자 글쓰기 모임, 철학모임, 시사토론회, 독서토론회등이 구성되어 있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임은 노동자 글쓰기 모임으로 공동집필에 공동창작이 전개되고 있다(제1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추천작으로 "안양전차위장이전 연대투쟁기가 실린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들은 아직 도서대출회원에 머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소극적 회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1, 2회 진행되던 독서한마당을 보다 적극적인 문예집회로 기획하여 대중의 자주적 문예창작의 장이 마련되어야겠다. 회원확보사업은 각 단체의주요한 사업으로 인적 물적 재생산구조의 기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다 광범위한 회원들을 견인하여 직업별, 계층별 소모임을 다양하게 꾸릴 때에만 지역문화운동은 보다 활성화될 것

이다. 이와같은 대중조직사업과 교육사업은 상호 결합되어 발전되는 것으로 대중조직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지역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를 얼마만큼 잘 수용하고 개척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문화대중조직이 건설될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기초위에서 중심활동가들은 문예이론의 확보, 예술적 기량의 확보, 실무역량과 사업역량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업적 문예활동가의 재생산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문화운동의 당면한 주요과제로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연대, 지원활동

연대활동과 지원활동을 나누어 살펴보면 연대활동이란 전체민족운동의 과제 및 지역운동과제를 지역운동의 통일된 입장에서 서서 정치싸움 및 민생싸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감시단 활동(87 12), 총선대책위 활동(3, 4월) 전이구속 수사 범시민대책위 활동등의 정치적 싸움은 문화단체의 수위와 역량상의 문제로 내용적인 연대활동으로 참여했고 그린힐 봉제공장 대참사 대책위 활동(3 24 -4월초), 5월 광주항쟁 계승제(5 28), 안양전자위장이전 철폐투쟁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원활동은 각 노조 품목별 결성지원, 노동문화지원 뿐 아니라 파업시 문화프로그램 지원활동등이 있었다. 연대지원활동은 대중문화조직의 수위 및 역량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즉 문화대중조직의 중심사업을 문예를 매개로 한 대중성 확보에 두면서도 정치적 싸움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하면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초기사업에 질곡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 문화운동을 단순 기능지원으로 인식하는 역타의 활동가들 간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

이 어려웠다. 연대사업과 지원사업은 지역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요한 고리이긴 하지만 조직중심에 대한 올바른 판단하에 결합하여야만 지원연대의 조직적 성과를 이룰 것이다. 앞으로의 연대사업은 각 문화단체들의 위상에 맞는 올바른 역할분담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내 문화운동단체는 지역운동의 보조단위가 아니라 지역운동활성화에 선봉에 서는 주체적 입장에서 지역운동 내부를 통일시켜나가고 이러한 통일된 입장에 따라 지원연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또한 문화운동이 역타부문운동과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지원사업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문화상담실 및 노조사업부의 강화).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활동내용을 살펴 보았으나 아직 그 실천적 평가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당위성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실천속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4. 안양문화운동 연합을 내오면서

앞서 서술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줄기찬 실천활동을 진행하면서 조직의 역량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일정정도의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실천의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숨가쁘게 뛰어온 문화운동 단체의 앞에는 주관적 조건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문화운동내의 실천적 중심역량과 전문적 문예활동가의 담보, 이와 결합된 선진대중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요구받게 된 이유는 아래의 세가지였다 첫째, 놀라운 속도로 역사의 전면에 진출하고 있는 대중의 의식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대중투쟁의 질적 전환과 이러한 요구에 맞게 정치투쟁과 결합된 즉각적이고 선도적인 문화투쟁을 전개해 낼 수 있는 조직건설의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셋째는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정도와 결합해 나갈수 있는 문화활동가들의 교육역량과 실천역량, 전문역량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에 기초하여 이를 담보할 것



을 자기의 임무로 갖는 새로운 조직의 건설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러한 조직건설의 방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려고 하였던 것은 각 3개 문화단체의 기존역량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상에서, 각 문화단체를 약화시키지 않는 선상에서 새로운 조직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단체의 대중조직력 확보, 중심활동가의 배가, 재정적 독립, 실천역량의 강화 등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씩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안양문화운동연합을 내오게 되었다.

1 연합의 위상과 역할

안문연은 88. 10 16. 창립하였으며 동년 11. 16일 창립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안문연 건설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쟁점은 안문연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와 연합조직의 위상,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안문연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제기된 여러가지의 주관적 요구로부터 타당성을 부여받고 이 타당성에 근거하여 위상과 임무가 결정되었다. 연합이라 할 때 연합의 개념은 평면적인 양면의결합이 아니라 양의 집중으로 새로운 질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질의 연합조직은 주.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요구되어진 임무를 올라오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3개 문화대중조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은 노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실천을 통하여 단련된 문예활동가 및 선진대중 조직부대로써 즉 문예활동가들과 이와 결합된 선진대중의 조직으로 위상이 지워졌으며 주요한 임무로는 정치적 과제와 예술적 과제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대중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문예활동가의 자질을 높여 내기 위한 문예이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체계의 확립, 보다 적극적인

인 연대실천, 노동운동 및 계부분 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의 강화등을 임무로 한다.

2. 안문연의 구조 및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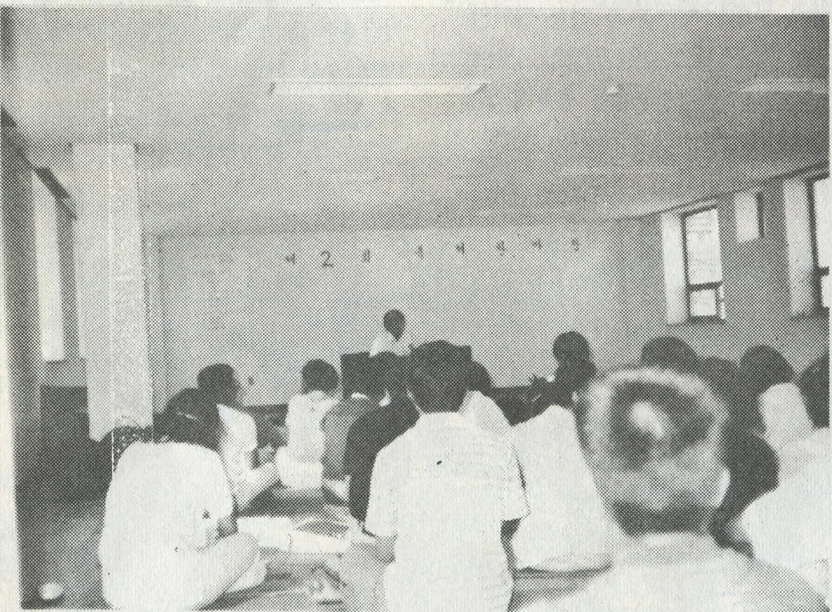
안문연은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있는 것이다 미흡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면서 조직체계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사무국 중심체제로 민족예술연구회(노래단, 연극단, 문예비평단)와 노동문화상담실을 두고 있다. 민족예술연구회는 진보적 문예작품의 창작 및 보급활동을 중심사업으로 하여 전문문예역량강화를 이루고, 노동문화상담실은 노동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문화상담지원을 중심으로 노동문화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노동운동단체 및 노조와 연대협력하여 노동문화제를 기획한다. 89년 상반기 민족예술연구회의 활동내용은 연극학교, 노래학교, 문학교실등의 교육사업에 주력하면서 전문역량을 키워내어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노동문화상담실에서는 노래단 노조순회 공연과 함께 임투문화지원단을 지역 여러 문화단체와 공동구성하여 노동운동을 지원하면서 실천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5. 안양지역 문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우리의 변혁운동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새로운 대오가 꾸려지고 있다 이러한 대오에 광범위한 대중을 결집시켜야 하는 노력과 주력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운동의 속도와 대중의 자주적 진출속도에 맞게 문화운동의 고유한 과제와 임무를 부여 받는다. 문화운동의 고유한 임무란 지배문화(매관적 군사문화, 본당영구화의 반공문화, 사대주의적 외세문화, 뇌살적 퇴폐상업문화)와의 올바른 대적전선을 형성하고 모든 문화운동의 동력을 결집하여 대중과의 결합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진보적 문예창작물들을 창작 보급하고 궁극적으로 참 민족민중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여 전체운동

→ 8 면에 계속



한편으로는 노조문화부의 지원을 중요하게 사고하여 사무국 내에 노조사업부서를 신설하여 적극적 지원형태를 띠었지만 주체역량의 미비로 올바른 지원 및 교육활동

필요성. 둘째, 민중들의 뜨거운 투쟁 속에서 발화되는 삶의 내용을 예술적인 형태로 담아낼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를 담아낼

연재

집회의 과학적 준비를 위하여

집회는 민중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다양한 실천을 하는 행 위다. 어떠한 집회이건간에 집단적인 존 재인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운영 되는 집적속 에서 집단적 의식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서서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사람들로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집회를 꾸려내고자 한 민중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중들이 사회 전반 에 깔린 지배계급의 의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수 많은 집회들을 잘해보 겠다는 막연한 의지만을 가지고는 잘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 에서 올바른 집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민중주체의 집단적 의식을 가진 합목적적인 노력만이 보다 집단적인 민중의 의식을 확 산시켜 낼 수 있으며 이 속에서 집회 또 한 보다 올바른 집회로 그 내용을 더해 갈 것이다. 본 난에서는 집회의 과학적 준 비를 위하여 3회의 연재를 통해 집회의 구 축방법과 종류, 올바른 집회의 내용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부)

목 차

- 1 들어가는 말 - 집회란 무엇인가
- 11 올바른 집회에 대하여
111. 집회의 구축
 - 1) 기획
 - 2) 준비
 - 3) 진행
- IV 집회의 종류
 - 1) 보고대회
 - (1) 보고대회의 일반적 진행순서
 - (2) 배치
 - 2) 전진대회
 - 3) 쟁의집회
 - 4) 정리집회
 - 5) 가두집회 및 행진시의 대오 배치
 - (1) 가두집회
 - (2) 가두행진

V 결 론

I 들어가는 말 - 집회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위로하고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사람의 의견과 힘을 모아서 실천을 해 왔다 원시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은 함께 생존하고 생활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어려운 가운데 에서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었다 이때의 집회는 생활공동체로써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바로 사람들은 개 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집단속의 사람이었 다 그러나 그 후 사회적 분업의 발달로 생산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절대적 생존경쟁 - 생산력이 낮아 자연을 개조시 킬 힘이 적을 때 즉, 자연에 순응하는 채 집경제의 시절에 나타나는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동물적 생존경쟁 - 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사람들의 사이에는 생산물의 획득을 위해 일하는 집단과 타인들의 노동을 통 한 생산물로 생활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즉, 집단속에서 자주적이고 주체 적인 노력을 하는 창의적인 집단인 민중 과, 민중을 보호한다는 거짓말로 민중의 자주성을 억압하여 주체적인 노력과 창의 적인 실천을 자신들의 활용도구로 생각하 는 자주적이지 못한 집단인 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 의 집회는 민중의 모임과 지배계급의 모 임으로 모임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이다 특히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기 위해 군중집회를 이용하게 되었 다 즉 자신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 단으로 집회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 배계급들은 민중들의 집회를 철저히 막았 다 왜냐하면 우리 민중들은 서로의 의견 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알 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더욱 많은 것 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즉 지배계급들이 민중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중들에게 알려져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였다. 이렇게 민중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지배계급은 교육, 문화등의 제반 수 단을 통해 개별적 의식을 강화시켰다 예 를 들면 "조선사람은 모래알 같아서 단결이 안되고, 조선사람은 혼자 똑똑하고 그래서 여러명이 모이면 일이 더 안된다"라는 이 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이말은 일제 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민족이 기 지는 집단적의식을 개별적인 의식으로 바 꾸어 놓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 야기는 미군정 이승만 독재, 박정희독재 전, 독재인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 민족의 집단 적 의식을 개별적 의식으로 깨뜨리려고 하 는 집단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또한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생 각이 민중들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강조

하였으며 노총간부의 어용화 농협의 관 료화등 수많은 대중단체를 관료화 시키고 어용화 시켜왔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룩한 사조직과 어용, 관료조직 을 통해 집회, 시위형태로 지지 성원하도 록 하여 이것이 전체 민중들의 지지와 성 원인 것처럼 세우, 민중들의 집단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을 말살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집회를 통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쳐 민중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민중이 집단적으로 뭉쳐 민중의 자주권을 회복하려 한다. 이렇듯 집회는 민중이 모 여 서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이고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한 함께 실천하는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속에서 동료애가 생기면 이 는 그간 개별화 되었던 지배계급의 의식 을 깨뜨려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II. 올바른 집회에 대하여

인류가 계급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 자 이러한 집회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점 점 변해왔다. 민중은 이에 맞서 집회를 통 해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체이며, 민 중은 개별적 민중이 아니고 집단적 민중 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민중의 집회는 바로 민주 주의적이고 집단적인 생각이 널리 퍼질수 있는 민중주체의 집회로 되어야 한다 바 로 이러한 집회가 올바른 집회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집회는 어떠한 내용을 가 져야 하겠는가?

"민중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집회"

첫째, 민중들의 요구 특히 집회를 구성한 민중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집회이 어야 한다 이는 민중의 역량이 강화되 고 그 속에서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 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아주 가끔은 우연한 기

회에 폭발적으로 분출하기도 한다 - 민중 들의 폭발적인 분출은 우연한 계기에서 이 루어져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변한다 러 시아의 피의 일요일이 그러했고 가깝게는 87년 6월 항쟁 또한 그러했다 임무를 통 해 순차적으로 칼전된 대중정투로 바꾸어 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정권 의 폭압적 탄압이나 민중에 대한 폭압등 의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 다 - 일반적으로 집회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집 회는 집회에 참석한 민중들이 있으며 이 러한 민중들은 나름대로의 요구와 바람이 있어서 참석한 것이다 따라서 한 집회를 통해 단번에 민중의 집단적의식을 완전히 고 양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민중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스스로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적으나만 간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연극을 한 다고 해서 연극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연 극준비가 안되었으니 영화를 보고 가라고 하 면 일부는 돌아갈 것이고 일부는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 또 다시 연극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연극을 하지 않으면서 ."라고 빈정거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연극은 보았으면 뒤 풀이때 연극을 꾸민 사람들과 본 사람들이 연극의 준비에서 내용, 이후 과정등의 이 야기를 나누면 민중들은 막연히 보고가는 연극에서 함께 이야기 하고 그 속에서 참 여의식과 초기적 집단적의식을 느낄 수 있 것이다 그러나 욕심이앞서서 내용과 상 관없는 이야기나, 이는 아무나 못하는 것 이다 특출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는 식 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뒷풀이에 남았던 사람들은 큰 벽을 느끼고 돌아가게 될 것 이다

→ 7 면에 계속



힘든길 격려하며

안문연에 바란다

반민중적 문화를

압도할수 있는 문화활동

종이로 만든 가면과 모자를 쓴 아이들이 일본군에게 두들겨 맞고 지주에게 학대받는 농부의 모습을 연출한다. 청년들이 울며 일어나 "지주를 타도하자!", "일본놈을 몰아내자!" 하고 외친다 (중국의 붉은 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문화활동의 위력이 여실히 보여진다.

아이들이 하는 어설픈 연극이 이런데 전문문화패가 하는 문화활동이다 그 얼마나 위력있는 것이겠는가?

이제 우리 안양에 전문문화패가 생기고 그 기관지를 내니 크게 기쁜 일이다. 한두번 보고 듣는 연극과 노래만으로도 각오를 새로 다지고 의식의 잠든 부분을 깨우곤 했는데 늘상 시민의 옆에 있으며 지친 몸에 세 힘을 줄 전문 문화패가 생겼으니 그 아니 기쁜가

안양문화운동연합이 (한가위맞이 주민. 한마당)행사와 (소굴안마를 장승제)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는 이미 얼굴이 익을대로 익었고 그 기량도 알려질만큼 알려졌다. 그러기에 축하외에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 마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날리는 격으로 몇 마디 덧붙이며 인사를 대신한다.

우선 전문성을 더욱 살리길 바란다. 민중적이라는 것 만으로 좋게 봐주던때는 지났다 기량의 면에서 반민중적 문화를 압도할수있는 문화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업적 정신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창조물을 기대한다 문화창조활동과 아울러 안문연 활동도 직업적이길 바란다. 똑같은 잘못을 범해도 문화활동가들은 흔히 "---- 기질" 이 있다고 더욱 군육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안문연과 지난 5개월간 같이 활동하면서 그 활동이 짜임새있는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 좋은 기풍이 안문연안에 길이 보존 되길 바란다.

안양민청련과 같은 본무지대에 문화의 싹을 틔워주는 노력도 아울러 기대한다

독재정권이 개량적 요소를 내비치는 지역마다 우리는 빨리 진출해야 한다 일꾼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으니 지금 두배의 일을 해야 한다. 힘든 길, 서로 격려하며 어깨를 같이하고 가자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위원장 김종박

투쟁현장에서 함께하는 문화활동

87년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자계급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각 지역 및 전국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조직적 대오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문화영역에서도 올바른 노동자계급의 문화를 개발 전파하고 투쟁현장에서 그러한 노동자의 문화가 담보 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속에서 안문연의 창립은 큰 의의를 가진다. 이제 임투시기를 맞이하여, 안문연에서 새로이 투쟁현장에서의 제반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동자들과 결합하려고 준비해 나가는 일은, 아주 바람직하고 앞선시켜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이 일상적인 시기에도 끊임없이 시도되어 노동자들의 활동의 공간을 넓히는데 기여한다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신문을 창간함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을 수렴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여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안양노동상담소 김중해

안문연 2집판



꽃병과 책구기
(속셈이 보이는
화염병이 치켜들면)

→ 6 면에 이어서

“‘못한다’에서 ‘할수있다’로 고양되는 집회”

둘째, 지배계급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민중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집회이어야 한다. 집회는 지배계급도 활용하는 하나의민중지배방식이다 이들은 민중적 집회의 형식을 빌어 자신들의 지배내용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민중적 집회는 지배계급이 행하는 위장된 민중적 형식을 올바른 민중적 형식인 집단적이고 민주적 집회의 형식을 통해 깨뜨리고 그 속에서 올바른 민중적 내용을 민중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민중들의요구와 지향을 따를 때 민중들은 민중적 집단적의식으로 무장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지배계급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알게 되며 보다 민중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집회만이 지배계급의 허구성과반민중성을 폭로한다는 생각을 벗어나, 모든 민중적 집회는 바로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그 속에서 민중적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못한다”에서 “나는 할 수 있다”로 “나는 할 수 있다”에서 “우리는 더욱 잘 할 수 있다”라는 자각은 바로 커다란 문제보다는 적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집단적 의식이 확대, 강화되는 집회”

셋째, 집단적 의식이 확대, 강화되는 집회이어야 한다. 그간 민중들은 가정, 사회 기타 여러분야에서도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생활을 해온 경험이 전달. 따라서 더욱 쉽게 지배계급의의식에 빠져 들었고 개인주의 소영웅의식에 빠져 들었다. 소위 민중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자적 민중들 속에서도이러한 개인주의, 소영웅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민중의 지배계급의식은 하루아침에 집단주의 의식으로 바뀔 수는 없다. 이는 생활 전반에 걸쳐 서서히 바뀐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집회는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꾸려나야 한다. 이는 기획에서 준비, 진행, 평가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목적적 노력을 하는 대자적 민중들의 의식은 강화될 것이며, 또한 즉자적 민중들도 올바른 민중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지속성을 갖는 집회”

넷째,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는 집회이어야 한다. 민중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집회는 계속되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집회를 지배계급의 의식이 확산되도록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민중들이 모이는 집회 속에서 민중적 집단적의식을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초기적으로 자각한 민중들은 민중들의 생각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민중들의 집회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뜻을 같이 한 집단인 조직(조직은 뜻을 같이 한 집단이다. 집단적 존재인 인간이 뜻을 같이 한 집단으로 묶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것이다. 따라서 조직은 뜻에 따라 다양하다. 조직은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해 왔다면 그것은 바로 지배계급이 조직, 즉 인간의 결합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친목회, 동창회, 계모임 등 다양한 조직속에 이미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모든 조직에는 뜻에 따라 화합이나 화비 또는 행사 등이 있다. 또한 이런 것이 구성원들의 동의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어느 조직에나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들이 그 조직의핵심인 것이다. 즉, 조직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께 묶인 것이다. 또한 뜻에 따라 화합과 행사의 내용은 결정된다.)으로 묶어질 것이고 이러한 속에서 민중들의 집회는 더욱 자주 열리며 횟수를 더해 갈수록 그 내용 또한 충실해져 갈 것이다. 이윽고 때문에 지배계급은 민중적인 민중들의 집회를 두려워 하여 민중적 집회를 꾸려내려는 민중들의 의지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꺾어 누르려 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중들은 지속적으로 민중적 집회를 꾸려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 집회를 통해 집회를 기획 준비한 민중이 더욱 강한 민중의식으로 무장하고 이에 참석했던 민중들도 민중적 의식으로 무장되어 민중적 집회를 꾸려낼 수 있는 민중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때만이 민중적 집회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으며 지배계급의 탄압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집회는 집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설, 확대,강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편집부

2호에 계속



기획실 다리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2 초동B/D 501
전화: 266-7415, 277-9360

● 청첩장·초청장·연하장·편집·기획·인쇄

창간호

→ 5 면에 이어서

속에 발현시키고 복무하기 위한 내용적 과제와 조직적 과제는 무엇 인가?
내용적 과제로는 첫째, 문화운동내부의 실질적인 중심을 세우는 일과 문화운동의 정치적 과제와 예술적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상을 세우는 일이다
둘째, 현재의 상황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문예이론 역량의 강화, 창작역량의 강화, 대중교육역량의 강화를 통한 예술운동으로서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셋째, 올바른 조직체계와 조직운영원칙을 강화하여 대중과의 긴밀한 결합력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조직적 과제 및 전망으로는 첫째, 지역문화운동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일시켜 나가면서 (경기남부 차원의 전국적 차원의 문화운동연합을 전망한다 둘째, 진보적 문화운동영역으로 가담하여는 예술가를 묶어 세울 수 있는 예술가 대중조직을 창출하는 일이다.
셋째, 지역운동통합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여타의 운동과의 연대지원 실천들을 공고히 하면서 전체운동 대오에 올바른 복무를 이룩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안양지역 문화운동의 역사개괄 및 앞으로의 과제와 임무를 제시해 보면서, 조직적 전망을 간단하게나마 피력해

보았다. 안양지역 문화운동의 역사가 짧고 실천중심의 사업에 집중하면서 논리적 체계성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두에서 피력하였듯이 집필자의 역량 미흡으로 구체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당위성에 입각한 개략적 전망만을 밝혔다 이에 대한 동지들의 의견과 애정 어린 비판을 바라며 앞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을 통하여 올바른 사상적 체계와 과학적 전망을 세우고 실천방도를 내놓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집중시키자

집필담당 박찬웅

→ 3 면에 이어서

12) 노동자 문화활동의 조직

여러 운동단체들의 조직들이 발전 분화하고 지역운동의 개념이 명확해진 뒤부터 현장문화활동은 바로 노동자문화활동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노동조합내의 일상문화활동으로서 노조문화부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자 주체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노조문화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대중조직이며, 문화활동으로 노조사업을 강화시키고 전체운동 속의 노동운동에 복무하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노조문화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통해 노동계급의 의식을 체화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게 된다

13) 현장성을 획득한 예술성

일상적인 문화운동이 대중조직에 의해 이루어지자 문화운동가로서 활동하던 문화패들은 대중조직으로 깊숙히 투신하던가 전문적인 예술활동가로서의 활동방향을 선택해야 했다 운동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자 전문성과 예술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노동자

적 정서(계급정서)에 올바른 민중성(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가의 탄생과 전문성의 확보는 쉬운일이 아니었다 현장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지연, 연대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문화운동 대중조직들의 사업작품은 현장성을 획득한 예술성을 담보함으로써 리얼리즘을 다지기 위한 기본단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14) 대중집회에서의 문화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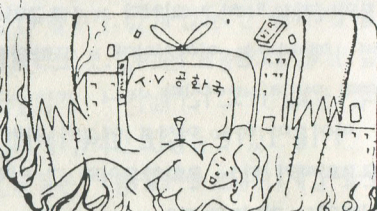
85, 86년 이후 집회의 양상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반해방구의 활동력을 보장해주는 대학 노천극장에서의 대중집회는 실로 다양한 방식의 문화매체를 이용한 선전선동을 가능하게 했다 대자보, 자유신문, 팜플렛, 풍물, 깃발춤, 합창, 대형걸개그림, 민화전시, 사진이야기 전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매체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문화운동 양식으로서의 대중적 확산에는 늘 대상에 따라 개량화 또는 소시민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대중집회에서 선전, 선동의 내용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의 문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악습한 것 처럼 문화운동은 대중성

천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있다 89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민족예술인총연합이라는 전문예술가 대중조직이 건설되고 문예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조직적 전망을 가지면서 문화운동은 자신의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고 각종 지연, 연대활동과 조직건설에 힘써야 한다 전체적 통일전선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영역안에서의 다양한 조직화를 이룩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화운동은 대중의 문화수용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운동으로서 보급과 향상의 대중노선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대중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전문성을 얻고 동시에 그 결과들을 대중과 공유하려는 보급에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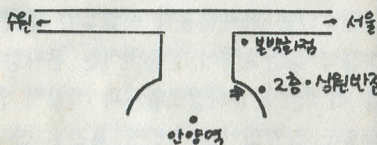
우리는 늘 지당한 말씀을 귀가 아프게 들 어왔다 우리에게 현장속에서의 실천만이 남아 있다.

민족예술연구회



상원반점

중국요리의 대명사인 차장면! 이 차장면을 최고로 맛있게 만드는 집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T. 49-7559



이영화는 복에서 개봉할 당시에는 "모스크바에서는 울어도 소용없다"로 번역을 하였다고 한다 정부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안양 땅에서도 소련 영화를 보게되다니 묘한 감회가 있다

우리 남쪽의 영화에서 노동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지저분하고 주책맞으며 거칠다 늘 주인공의 주변인물로 나오면서 자기 생각은 없이 주어진 상황에 억눌려 신세한탄이나 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나온다 예를 들어 자기 애인을 짓밟은 사장을 복수한다고 칼로 찔러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영화가 그런 것이다 경찰차를 타고 감옥으로 가는 사나이의 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같은 눈물. 이런 장면을 보며 많은 여성들은 자기 애인이 잡혀가는 것 처럼 쉽

게 온다 "모스크바. "에서는 노동자가 주인공이다 같은 기숙사에서 사는 세 여성 노동자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중심인물은 기계부품 공장에 다니는 여성으로 이름은 잊어 먹었다

영화

모스크바는 눈물을...

소련 말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이들 중 빵공장에 다니는 친구는 노동생활을 싫어한다 즉 육체노동을 천하게 생각하고 정신노동자를 우월하게 생각한다 그 여성은 정신훈노동자에게 시집을 가기를 원해서 주인공을 끌어들이어 여러가지 공작을 부려 자신은

아이스하키 선수와 결혼한다 이들중 한명은 소련의 보통 여성들이 결혼하는 방식으로 동료 노동자와 결혼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텔레비 방송국 직원과의 연애 끝에 임신을 하지만 버림을 받았다. 그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기숙사 동료들의 탄생축하 파티를 받으며 다시 공장에 복귀한다 그는 대학에 가서 화학공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기계 수리를 잘 하는 소질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나중엔 공장장이 된다. 미혼모로서 사회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불편 부당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재미있다 그는 전차 안에서 노동으로 단련된 홀

륭한 손을 가진 노동자를 만나다 다행히 그는 독신으로 주인공을 사랑한다 주인공은 7 남성과의 야외소풍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사회의 관습을 알게 된다. 또 자기 딸의 아버지가 찾아와 둘의 생활에 끼어들려고 하자 생활과 의식을 공유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단호히 거절한다 세계적인 작가 고골리의 이름을 붙인 공원에 앉아 네 삶은 당신과 연관없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자주선언을 하는 한 여성..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소련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의 반역자로 선택되는 남성인물의 반여성적인 발언은 반드시 해결해주는 장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며 아쉬움으로 남긴다.